

혼과 가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변화의 소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사회 속에서의 변화를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정에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기독교인들의 과제인 것이다. 기독교인이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일을, 그렇다고 현대적인 경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만 취하면서 쉽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 신앙적인 긴장 속에서 이 시대의 경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배척하면서 기독교인인 나의 가정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각자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진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구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기독교론적 해석

고 재 수*
(부교수, 교의학)

1.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는 구약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 읽을 수 있다. 예를들어 그 당시의 높은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 사실이 있다(삿8:26, 겔23:6, 예8:15, 단5:1). 또 그 당시에도 전쟁을 할 때는 모략을 사용했고(수8장), 또 어떤 때는 장난으로 전쟁을 했다는 사실(삼하2:14이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런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런 요소들은 하나님과 분리해서도 연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경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 요소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해석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보다 더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자세히 지키고 또 구약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여 그 행동들을 가지고서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금하기도 한다. 가령 십일조에 대한 율법(신14:22이하)은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10%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또 금식하며 베옷을 입은 다니엘의 기도(단9장)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금식기도도 좋은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식의 사용법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도덕적 해석방법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처음의 방법과 비교할 때 분명히 성경의 목표에 더 가까운 것이다. 첫번째의 방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이 방법에는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당신의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해석은 구약의 핵심을 무시하는

*본명 N.H. Gootjes, 캄편신학교, 캄편신학대학원, (Th.D), 현, 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구약의 메시지는 왜곡되게 되며, 이 해석방법에 따르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39, 40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요 5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쟁론하셨다. (18절이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시기 위해 증인 셋을 언급하셨다.¹⁾ 첫째 증거는 세례요한의 것이고 (33-35)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의 증거이며 (36), 세번째는 아버지의 증거이다. 즉 아버지께서 (37) 당신의 말씀으로 (38), 즉 성경을 통하여 (39)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경이란 물론 구약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의 기능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있음을 인정하신다.²⁾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가진다고³⁾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구약성경을 상고하고 또 구약에서 찾은 것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다. 여러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랍비의 말에서도 나타난다. 그 랍비의 말

1)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말로서 증인은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며 그의 증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 증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것을 권면한다. 참고 R.Schippers, *Getuiger van Jezus Christus in het Nieuwe Testament*, Franeker: Wever, 1938. pp. 198ff, 요 5장에 대해서는 pp. 161ff.

2) ‘상고하거니와’란 동사는 두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사실을 나타내는 ‘너희가 상고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명령을 나타내는 ‘너희가 상고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빈정거리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의미는 문맥에 잘 맞지 않는다. 예수께서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해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 예를들여 B.F.Westco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Rep. Grand Rapids: Eerdmans, 1975. p. 91

3) 한글 번역에는 ‘영생을 얻는다’로 되어있는데 원문동사는 ‘ἐκείν’으로서 ‘영생을 가진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성도가 지금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번 강조되고 있다. 참고 3: 15, 16, 36; 5: 24; 6: 40, 47, 54; 11: 25, 26 등.

은 ‘율법에의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생명……만일 누가 율법의 말을 자기의 것으로 얻었다면 그는 오는 시대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얻은 것이다’⁴⁾라는 것이다. 그럼 이 입장으로라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영생이 율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그에 대한 정확한 준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장에 반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신다. 즉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증거한다는 것 (39)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구약을 읽는 사람은 영생 또한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⁵⁾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구약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비중있는 강조를 할 수 없다. 구약을 기독교적으로 읽는것은 그저 재미있는 주제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생이 걸려있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아니면 다소간) 지키는 자력 구원의 종교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요 5:39, 40은 구약을 기독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본문이지만 유일한 본문은 아니다. 예를들어 갈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살릴 수 있는 것임을 부정한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1하반절).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은 율법이란 말 대신 (구약)성경이란 말을 사용했으며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말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22하반절)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딤후 3:16은 구약에 대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한다. 그럼 이 본문은 구약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본문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어떤 교훈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5절은 바로 그 성경 (거룩한 기록들)에 대해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4) 이 말은 랍비 힐렐의 말이다. 참고 F.F.Bruce,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83, p. 141 각주 28

5) C.K.Barrett는 영생에 대해 유대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강조한다. 참고 *The Gospel of According to St. John*, London: S·P·C·K, 1972 p. 223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읽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구원의 율법의 가르침이 주는 유익도 얻지 못한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수건을 눈에 가리고 구약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고후3장). 즉 그때 구약을 잘 읽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14)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질 것'이다(16절). 즉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전제들 없이 구약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의 구약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대해 구약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의 다른 쟁론에서 나온 것인데 특히 아브라함을 언급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8:56) 또 히11장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한다.

예를들어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장막에 우거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10) 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16)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다. (히5:9; 9:26-28).⁶⁾

이 단락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읽는 사람은 그의 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의 종교는 제물을 바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것이 되며,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구약을 읽는 사람은 구약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

6) 이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로는 Calvin, *Institutes*, II, X: 구약과 신약 사이의 통일성을 참고하라. 한 문장만 인용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하는 복음의 언약이 유대인들과 맺어졌음을 들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II, X, 4) 이때 칼빈은 요8:56과 히13:8, 눅1:54, 72을 인용하고 있다.

2. 전체 구약

이제 우리가 구약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셨는데 '전체 구약'이라는 것이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낯선 동행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고 했다(눅24:21).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소멸되었다. 그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책망하셨다(25).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선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27).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속한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언급하셨다. 즉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그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의 상태에 바로 이르지 못하고 먼저 낮아지심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구약에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사야53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또 모세오경에서도 그것은 증명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전체 구약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24:44, 45). 여기서 그리스도는 성경 곧 구약성경의 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이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란 여호수아부터 소선지까지를 의미하며, 시편이란 구약의 나머지 책들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결과 신약은 구약의 여러부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야 하는가를 종종 보여주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에서 어떻게 예표되었는가를 연구할 수 있다. 신약은 이에 대해 여러가지 요소를 언급한다. 세례요한은 이미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다(요1:29참고36).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사도요한은 유월절 규례 중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인용했다(요19:36). 또 특히 히브리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히4:14이하).

우리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도 연구할 수 있다. 그 경우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하는 많은 본문을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예로 미5:1(참고 마2:5이하, 요7:42)과 사53:12(눅22:37)를

언급할 수 있다. 그 외에 선지서의 또 다른 본문도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사6:19은 이사야 당시의 상황에 해당되는 본문이지만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한 반응을 설명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요12:41).⁷⁾ 다른 예는 마2:15에 인용된 호11:1이다. 구약의 선지서와 관련하여 뱀전1:11은 '자기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라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구약시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도 연구할 수 있다. 신약은 그러한 적용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시110:1을 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마22:41-46).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22:2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다. 제자들은 성전청결사건을(요2:14이하) 시69:9에 따라 이해했다. 또 베드로는 시16:8-11의 인용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시키면서 그 인용을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라고 소개한다(행2:25).⁸⁾

이렇게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및 시편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는 어떤가? 구약 성경에서 역사는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부터는 그 문제를 특별히 다루겠다.⁹⁾ 먼저 필자가 읽거나 들은 몇가지 보기를 제시하겠다.

3. 몇 가지 보기

교회는 처음부터 구약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1C

- 7) 한글 번역에 '주'로 번역된 말은 원문에 '그의'(αὐτοῦ)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그'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참고 예를들어 B.F.Westco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 185
- 8) 다른 예로는 참고 K.Schilder, *Christ In His Suffering*, Tr.H.Zylstra, repr. St. Catherines Ont: Paideia, 1979, chXVI: The Author Sings His Own Psalms. pp. 269ff
- 9) 이 문제는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신약의 역사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이 확신이 K. Schilder로 하여금 각주8)에서 언급한 *Christ In His Suffering*이란 책을 쓰게 하였다. 같은 규칙이 사도행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D.K.Wielenga, *De Plaats van de Handelingen der Apostelen in de Openbaringsgeschiedenis vanhet N.T.* In *De Akker is de Wereld*, Amsterdam: Bolland, 1971를 참고하라.

말 2C의 속사도들이 이미 그렇게 했다. 예를들어 로마의 클레멘스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것을 드리우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그것은 그것으로써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피로서 구원이 있음을 밝혔다.'(I Clemens, 12)그 붉은색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게 한 것 같다. 다른 속사도인 바나바는 모세가 두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올린 사건을 언급했다. 그에 의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이다(Barnabas, 12). 여기서는 아마도 나무로 된 지팡이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것 같다.¹⁰⁾

보다 최근의 보기도 많이 언급할 수 있다. 웃니엘이라는 사사의 이름은(삿3:5이하) '하나님의 사자(獅子)'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사자(창49:9) 곧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또 웃니엘은 유다지파였다. 이런 이유로 웃니엘은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¹¹⁾ 또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그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다'는 것이다. 구약에는 유명한 여호수아가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다. 첫번째 여호수아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참고히4:8). 참된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두 보기에서는 구약의 사건과 그리스도가 이름에 근거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존재에 있어서도 평행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라고 했다(삼하 5:1). 물론 그들이 우선적으로는 다윗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골육이시며 참으로 인간이시다. 또 다윗은 아브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렸다(삼하 3:22).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당신의 인간적 감정을 보여 주셨다.

구약이 그리스도와 갖는 또다른 관계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구약의 사건에서 예표되었다는 관계이다. 예를들어 백성들이 물을 요청했을 때 모세는 반석을 쳐야 했다(출17:6).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였다

- 10) 교부시대의 다른 보기로는 E.C.Blackman, *Bibl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57 pp. 90~108를 보라
- 11) 이 보기는 K.Schilder, *Iets over de Eenheid der 'Heilsgeschiedenis' in Verband met de Prediking*, in W.G.de Vries, *Het Ene Woord en de Vele Sekten*,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83. p. 184f(이하 'Heilsgeschiedenis'로 표기)

고 한다. 왜냐하면 고전 10:4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얻은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즉 반석이 지팡이로 맞았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매를 맞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뒤에 다시 물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다(민20:8).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만 고난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반석을 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표를 없애버린 것이고 그것은 모세가 심한 벌을 받게 된 이유였다.

또다른 예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에서 시작되는데(민12:1이하)그 당시 모세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로 만드시는 행동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 여자가 흑인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죄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적용이다.

마지막의 이 적용은 구약의 인물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론에서 나왔다. 구약 역사와 신약의 그리스도를 이런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체계화한 사람은 크라프 S.G. de Graaf이다.¹²⁾ 그의 책에는 이런 예들이 항상 나오는데 다음의 것들도 거기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의 신앙적 행동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I p. 98, 한글 p. 157). 압돗에서의 야곱의 싸움은 갓세마네 및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싸움에 대한 약한 그림자이다(I p. 153, 한글 p. 235). 야곱의 후손을 보호하는 것(특히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요셉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호에 대한 모형이다(I p. 171, 한글 p. 260) 크라프는 모형 대신 반대모형을 사용하기도 했다. 즉 구약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는 행하셨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남아 있는 두 아들은 갑자기 생긴 죽음의 슬픔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였는데 그분이 백성의 슬픔에 완전히 참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I p. 236, 한글 p. 348).¹³⁾

12) S.G. de Graaf, *Verbondsgeschiedenis I,II*, Kampen: Kok, 1935. 한글번역은 영역본 'Promise and Deliverance'의 재번역이다. 박권섭역, *약속 그리고 구원* 서울: 크리스찬서적, 1987 본문에 나오는 인용의 숫자는 화란어 원문과 한글번역의 페이지를 가리킨다.

13) 다른 많은 보기들은 M. B. van 't Veer 'Christologische Prediking over de Historische Stof van het Oude Testament' in R. Schippers Led. *Van den Dienst des Woords*,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44, pp. 141ff를 보라. (이하 Christologische Prediking으로 표기).

4. 이 보기들에 대한 평가

위의 보기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선 그들의 목표는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구약 역사를 읽을 때 우리의 임무는 참으로 모든 역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는가를 찾는 일이다. 이전의 신자들이 이 문제에 많은 애를 썼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 도덕적 교훈에만 만족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도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보기들은 간단히 살펴보자. 라합의 붉은줄(수2:18)¹⁴⁾은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어진 표시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의 수단이다. 또한 그 붉은줄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그 표시대로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구원의 수단이다. 따라서 그 줄은 예수님의 피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둘 사이의 유사점은 표면적인데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사용된 지팡이는 십자가의 예표가 될 수 있는가?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기적을 행했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했으며(출14:16),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출17:5,6). 따라서 지팡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다. 그것은 우리 구원의 십자가와 다른 것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이다. 따라서 지팡이와 십자가 사이의 유사점 역시 표면적인 것이다.

웃니엘의 역사에서 그 이름은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암시되지 않는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웃니엘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역사의 기독교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져야 한다. 여호수아와 예수란 이름상의 유사점도 기독교적 해석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예수란 이름은 다른 방향을 의도하고 있다. 예수님은 사실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설명도 나온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근본의 구원사역을 지적

14) 여기 언급된 줄은 2:15에 언급된 줄과 같은 것이 아닌 것 같다. 15절에 나오는 단어는 삼하 17:13 렘33:23에서도 사용된 단어이며 18절에서는 그와 다른 단어가 나오므로 그 단어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실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삿16:12). 참고 J.H. Kroeze, *Het Boek Jozua*, Kampen:Kok, 1968, pp. 45, 47.

하는 것이지 구약의 여호수아와 유사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골육에 대한 구약의 표현도 삼하5:1에는 물론 그 표현이 다윗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그 표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킬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인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인간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친척이라고 말한 것이다. 즉 그 말은 그와 싸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대한 표현이다. 또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흘린 눈물도 그(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눈물에 대해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으며 그 눈물은 사실 다윗이 아브넬의 피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표시였다.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 일과 예수께서 당하신 때맞음 사이의 관계는 고전10:4에 근거된 것 같다. 하지만 사실 고전10:4은 이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반석은 광야에서 백성에게 물을 준 반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일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다. 모세의 이 결혼은 성경에서 모형으로 제시된 사건이 아니라 단지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계기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민12장의 해석은 그 결혼이 아닌 모세의 지도력을 멧시지에 집중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크라프가 제시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및 반대모형은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크라프가 본문에다 첨가시킨 것이다. 하지만 구약의 본문은 그리스도와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묘사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원하시는가를 계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기독교적 적용은 이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¹⁵⁾

15) 필자의 생각에 크라프의 약점은 그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을 모형으로 보는 그의 결론에 있는 것 같다. 크라프는 구약역사를 인간중심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을 올바르게 반대했다. *Verbondsgeschiedenis I* p. 2, 한글 p. 19 크라프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에서, 비록 각 이야기에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에서 주권자이시다. 그는 자기의 사역을 통해 자신을 구속자로 계시하신다.”(I, p. 2, 한글 p. 20) 또한 “중보자는 구약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계신다. 그의 사역이 마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생각은 맞지않다. 그분은 이미 구약시대에 활동하시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구약 역사, 그 사람들, 그 그림자안으로 들어가셨다.”(I, p. 4, 한글 p. 23) 하지만 이 주장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크라프의 책에 대한 비평으로는 B.Holwerda, *De Heilshistorie in de*

크라프에 의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앙에 대한 예표라고 한다. 하지만 크라프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만들어낸 것임이 분명하다. 성경은 그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는데 즉 그의 행동은 우리 신자에 대한 모범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히11:17).

크라프가 지적한 다른 모형도 약한 것이다. 예를들어 압복에서의 야곱의 씨름이 갯세마네 및 골고다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씨름을 예표한다고 할 때 표면상의 유사점을 가지고 이 둘을 관련시킨 것이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압복강에서 야곱에게 우선적으로 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갯세마네의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 즉 그리스도는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시는 것이다. 야곱의 경우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즉 내용상의 유사점이 없다. 골고다와의 비교도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대적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신다.

위의 보기들은 비판해 본다면 기독교적 해석에 대한 보기로 제시된 것들은 거의 언제나 본문의 한 요소가 본문의 문맥과 분리되고 또 종종 본문의 의도와 모순이 된 채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기독교적 해석은 본문 전체와 관련되어야 하며 그 본문의 의도에서 나와야 한다.

5. 구속사적 설교방법의 공헌

기독교적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 화란에서 소위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논쟁에서 많이 토론되었다. 사실 구속사적 설교를 지지한 사람들은 기독교적이란 말이 구속사적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는 쉽게 증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스킬더 K. Schilder는 1931년에 ‘설교와 관련한 구속사의 통일성에 관하여’라는 기초적인 글을 썼다. 이 글에서 그는 구속사와 구속사의 통일성을 인정하는 설교가 기독교적인 설교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로 알려져

Prediking, in “...*Begonnen hebbende van Mozes*...” Kampen: Van den Berg,²1974 (이하 Heilshistorie로 표기); Van 't Veer, *Christologische Prediking* p. 154; J. R.Wiskerke, *Purim*, Utrecht: n.d. pp. 11ff. (한글번역은 월간고신 1989년 3월호 p. 59;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7 p. 56 각주 1.

60/고려신학보 제17집(1989년 6월)

있다고 한다. 스킨더는 구속사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밖으로 표현된 구원계시의 통일성이며 중심점이다'.¹⁶⁾

홀버다 B. Holwerda는 처음에(1940) 두가지 설교방법을 나타내기 위해 모범적이란 말과 기독교적이란 말을 사용했다. 뒤에가서(1942) 이 둘 사이의 딜레마를 사용할 때 기독교적이란 말 대신에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홀버다는 자기가 지지한 설교방법을 처음에 기독교적 설교라 불렀고 뒤에는 구속사적 설교라 불렀다. 또한 그는 '기독교적'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들어 '기독교적이란 말의 현대적 의미는 모든 계시가 그분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인격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까지 말하는 것이다'.¹⁷⁾

판트피엘 M. B. van 't Veer은 홀버다 이후에도 계속 기독교적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가 쓴 주요한 글의 제목을 '구약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기독교적 설교'(1944)이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구·신약에서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다. 이때문에 모든 설교는 기독교적이어야 한다'.¹⁸⁾

뒤에가서 기독교적 설교란 말 대신 구속사적 설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홀버다의 글이 미친 영향때문이었을 것이다. 홀버다의 글은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교과서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⁹⁾

그럼 이 기독교적 해석이 그 당시에 의미했던 것은 무엇인가? 구속사적 방법은 사실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해석을 많이 제한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16) K.Schilder, *Heilsgeshiedenis* pp. 155-158. 인용은 p. 158.

17) B.Holwerda, *Heilshistorie* pp. 82-84. 인용은 p. 84 홀버다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란 단어를 그 딜레마에서 배제시키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83).

18) M. B. van 't Veer *Christologische Prideking*, p. 137. 판트피엘은 여기서 개혁교회 교수인 크로쇠이데 F.W.Grosheide(신약학), 리델보스 J.Ridderbos(구약학), 혹스트라 T.Hoekstra(설교학) 등을 따라서 계시 및 설교의 기독교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 중심적이란 단어도 사용되었는데 판트피엘은 '여러 이유 때문에' 기독교적이란 단어를 선택했다고 한다(p. 138).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19) 홀버다의 글이 갖는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는 C.Trimp, *Heilsgeschiedenis en Prediking* Hervatting van Een Onvoltooid Gesprek, Kampen: Van den Berg, 1986 p. 66 참고. (이하 H.&P.로 표기).

그 해석을 많이 확장시켰다.²⁰⁾ 그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적용은 어떤 사건의 한 요소를 사건전체로부터 분리시켜 그리스도와 관련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구약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생애 사이에 평행을 만드는 일을 반대했다. 기독교적 해석이 단지 한 세목에서 찾아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를들어 위에 언급한 옷니엘에 대한 적용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 역사 자체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와의 관련을 세목에서 찾아서는 안되고 그 이야기 전체의 목표에서 찾아야 한다. 구속사적 해석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적 해석을 확장시켰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그리스도와와의 그러한 관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란 말을 제한된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기독교적이란 구원과 심판, 율법과 징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중보자의 인격과 사역 모두를 의미하고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언약의 약속과 위협 모두를 포함한다.²¹⁾ 이런 것을 역사에서 찾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해석을 찾는 것이라고 구속사적 설교방법은 주장한다.

그리스도와와의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두가지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적인 분으로 언급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들어 스킨더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과 또(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서 세상으로 오시는 일에 관하여 무언가를 말씀하실진대 그때 우리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하며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한다.²²⁾

이와같이 트림프는 구속사를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역사적 사건의 전체로 이해한다'.²³⁾

20) 참고 S.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Toronto: Wedge, 1970 p. 151. '구속사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사용을 제한시키기도 했고 확장시키기도 했다' 필자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말보다 '기독교적 해석'이란 말이 구속사적 해석의 의도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하 *Sola Scriptura*로 표기)

21) B.Holwerda, *Heilshistorie*, p. 84.

22) K.Schilder, *Heilsgeschiedenis*, p. 165.

23) C.Trimp, H & P. p. 37.

하지만 스킨더의 글에는 다른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신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설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그 결과는 이렇다. 즉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싸우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세, 여호수아, 사도들, 그리고 다윗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홍수때, 애굽에서, 호렙에서, 바벨론에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에서, 오순절에, 로마에서 일하신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설교의 주제로 언급된다. 예를들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삼하19:1-8)에 대한 설교의 주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싸우신다'는 것이다.²⁵⁾

이 두가지 표현 곧 '구약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신다'와 '구약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세상에 오시고 당신을 제시하신다'는 표현은 판트피엘과 트림프의 글에도 나온다.²⁶⁾

6. 구속사적 설교방법의 주장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우리는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설명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요5:39).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눅24:27,44).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신다(벧전1:11) 하지만 기독교적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이 거의 지속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제물은 요1:29, 히9:14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구약이 그 날마다의 제물을 항상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물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은 사건의 배경이다. 제물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그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기초해 있음을 밝힌다.

24) K.Schilder, *Heilsgeschiedenis*, p. 165.

25) 참고 S.Greidanus, *Sola Scriptura*, p. 145 와 p. 80 각주 136.

26) M. B. van 't Veer, *Christologische Prediking*, p. 151 C. Trimp, H & P. pp. 33ff. B. Holwerda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그의 글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의 설교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S.Greidanus, *Sola Scriptura* p. 145. 각주 123. 크라프도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사역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위의 각주 15.

매일의 제물에 대한 규칙은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 전에도 번제가 있었고 그 번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련된 것이었다. 예를들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창12:8) 또 노아가 바친 제사(창8:20)도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와같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선물도 다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롬5:12-21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은혜, 생명, 칭의 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다(15, 17, 18, 21절). 고전15:22대로 인간을 살리실 하나님의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갈3:15-29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에 참여한다(16, 22, 26-29절). 엡1:3-14은 우리가 선택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고 한다. 또 딤후2:5,6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한다.²⁷⁾

신약은 이 사실을 한번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것은 고전10:4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을 예로써 인용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을 마셨다.²⁸⁾ 이 물은 반석에서 흘러 내렸고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²⁹⁾ 그 당시 그리스도는 구약 백성들이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의 원천이시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물을 마셨고 살 수 있었다. 본문의 의미는 이 선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데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도 구원자였던 것이다.³⁰⁾

27) 문맥은 특히 왕이나 고귀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내용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에 포함된다. 인용한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28) 바울이 이 물을 영적인 것으로 언급하지만 그 물은 실제 물이었다. 그래서 영적이란 성경에서 물질적의 반대말이 아닌 경우가 있다. 참고로 엡1:3의 영적선물도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다.

29) 바울이 '따르는 반석'이라고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이나 두 번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나온 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마신물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10절 하반절의 동사(마셨으니)의 시제(미완료)도 이 주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30) 참고 F.W.Grosheide, *De Eerste Brief Van den Apostel Paulus Aan de Kerk te Korinthe*, Amsterdam:Bottenburg, 1932 p. 331. 여기서 이 본문이 성례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를 필요가 없다.

히11:26도 구약의 역사를 그리스도와 관련시킨다.³¹⁾ 본문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한다.³²⁾ 이 문장은 25절과 관련된 것으로 모세가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원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욕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구속사적 해석방법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백성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스킨더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생육신 이전의 로고스를 언급하면서 로고스가 항상 세상에서 일하셨다고 한다. 즉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³³⁾ 또한 요1:9도 이 표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이 인용되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³⁴⁾

하지만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탄생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한다(요12:46; 16:8).³⁵⁾

이 주석에 반대하여 요1:1-18의 순서가 역사적 순서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후 곧 14절 후에 언급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순서는

31) 여기서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지만 (예를들어 Ph.E.Hughe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1977 pp. 495f) 이 문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할 수 있다. (Hughes는 그것을 같은 페이지에서 인정하고 있다)

32) 이 번역은 한글 개역판보다 더 원문에 가깝다. 원문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석은 어렵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능욕을 받았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욕을 당하는 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게 여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능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33) K.Schilder, *Heilsgeschiedenis*, p. 182.

34) 참고 최근의 C.Trimp, *H & P*, pp. 35, 100.

35) 참고 C.K.Be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 134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6:14; 9:39; 11:27을 인용한다. '들어온다'란 동사가 시제(현재)때문에 (구약시대를 포함한) 오랫동안의 기간을 의미해야 한다는 주장은 6:14의 내용에 의해 반박된다. '세상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각사람'과도 관련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표현을 로고스와 관련시키는 주석에 동의한다.

역사적인 것이 아니며 5의 '빛이 어두움에 비취다'와 9의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도 사람이 되신 로고스에 대해 말하고 있다.³⁶⁾

그렇다면 신약 부분은 구약에 대해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표현을 지지하는가?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구약 역사에서 일하셨다는 표현이 없는데 구약의 본문도 역사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행동을 강조하지 않는다. 필자가 알기에 구약에는 그 당시 일하신 로고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구약 역사에는(성자를 포함한 삼위) 하나님이 활동의 주체이다. 그렇다면 구약 역사에 대해 설교할 때 '그리스도께서.....행하신다' 또는 '그리스도께서.....짜우신다'등과 같은 주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와서 주체로 나타나셨다. 이런 식으로 구약 역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도자로 언급할 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적 발전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7.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신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약 역사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아직 불완전한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땅 전체를 조사한 후에야만이 자세한 지도를 그릴 수 있듯이 구약의 본문을 두루 살펴본 뒤에야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창22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겠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창12장)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창15,17장)이다. 그 언약 그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근거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적 해석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구약 본문에서 언약을 찾았을 때에야 그 본문의 기독교적 해석의 출발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언약의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후손이 큰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또 창22장에서는 그 언약의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22:2)을 하나님께 바쳐야했

36) 참고 H.N.Ridderbos, *Opbouw En Strekking van de Proloog van het Evangelie van Johannes*, in *Het Woord het Rijk En Onze Verlegenheid*, Kampen: Kok, 1968 pp. 37ff.

다. 그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후손의 미래를 버렸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포기했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라고 한다(11: 17, 18).

아브라함은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유일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과 교제하시는 것이 그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단번에 보여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발전이 막혀버릴 위험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반적인 요구이다.³⁷⁾

바로 그 언약의 결과로 (창 15: 13-1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출 17: 1-7) 백성들은 그 물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적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6절).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기 위해 반석을 쳐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들의 일생에 소용될 것을 주실 것임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당시 언약의 백성과 오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일생의 모든 것을 당신께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요소가 여기서 어디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전 10: 4).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은(출 17: 8이하) 이스라엘 자신이 싸

워야 할 첫번째 사건이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는 그들이 칼을 만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애굽을 정복하셨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원수와 싸움에서 백성을 사용하신다. 그래서(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언약의 백성이 해방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더이상 나라 또는 민족이 아니라 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계속 신앙의 싸움에서 협력하게 하신다.

출 17장의 사건에서는 또 다른 것도 나타났다. 모세는 지팡이(곧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상징)를 울려야 한다. 그 지팡이가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게된다(11).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승리는 백성들의 열심있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 지팡이가 높이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이스라엘의 정탐군들은 붉은 줄을 구원의 표시로 라합에게 주었다(수 2장).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실 때 라합의 집은 남겨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신 7: 12).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여 주신다(6: 25 참고 마 1: 5). 즉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라합)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친척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에 참여한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파셨다. 웃니엘의 경우에도 그러했다(삿 3: 5이하). 그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 의 언약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자녀와 결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온 백성들은 벌을 받는다. 그 때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다는 말 그 자체는 회개를 의미하지 않는다(참고 10: 12이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 곧 웃니엘을 보내 주셨다. 이 사건은 그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³⁸⁾

37) 이처럼 언약개념은 도덕주의를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언약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이므로 그 순종은 보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8)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에 대해서는 H.J.Schilder, *Ik Schreeuw het Uit*, Groningen; Vuurbaak, n.d. pp. 19-23을 참고하라. Schilder도 이 본문의 기록론적 요소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언약의 선물에서 찾았다. '즉 이 백성은 그 모든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 이것을 위해 그 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 죽음, 부활 가운데 행하실 것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요소를 발견한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창3:15 이후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계속해 나가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과 함께 나아가셨다.³⁹⁾

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는 자주 두 가지 모양으로 찾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물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직분에서이다.⁴⁰⁾ 제물에 있어서는 주로 율법적인 본문에 나온다. 그러나 역사적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 하며 그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 어떤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크라프의 잘못된 기독교적 적용을 비판했는데 크라프는 동시에 사실 올바른 적용도 지적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분,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것이다.⁴¹⁾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물도 주셨다. 즉 한 수양이 뒤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

대한 예표이다.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목표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신들이 아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p. 19이하) '오실 그리스도'란 표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Schilder가 여기서 본문의 기독교적 의미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된다.

39) 이 같은 구약본문에 대해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언급될 필요는 없다. 신약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가지시는 교제가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근거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종종 언급해야 한다.

40) J.R. Wiskerke는 '참된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직분을 보아야 한다. 이 직분(예를 들어 사자, 왕)은 하나님의 언약안에서 위대한 직분자이신 그리스도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Purim, p. 12(월간고신 1989년 3월호 p. 59). 따라서 Wiskerke는 인물이 아닌 사역을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이 모형이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분명한 데 그 제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경우에는 분명하지 않다. 구약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활동에 대한 예표로 나오는 구약 역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될 수 있다. (참고 신18:18, 행3:22, 히3:1,2)

41) S.G. de Graaf, *Verbondsgeschiedenis*. I p. 98.

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또 아브라함이 인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제물로 주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아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22:14). 구약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대한 예표이다(참고 예들들어 시 40편과 그 시편을 인용한 히10:3,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셔야 함을 계시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라프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의 슬픔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언급한다. 그의 생각에는 그것은 백성의 슬픔에 들어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모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제10장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이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형제였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슬픔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그들 대신에 슬퍼해야 했다(레10:6).

우리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당시의 유일한 제사장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그들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그들이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여 성막을 떠난다면 제물을 바치는 일은 계속될 수 없다.⁴²⁾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없이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그 첫날의 봉사가 실패했다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사건의 기독교적 요소는 제물을 바치는 일을 계속함에 있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범했을 때(대상21장) 다윗 자신이 메시아의 예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역에 대해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난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벌을 끝나게 하신다. 즉 여호와께서 이 재앙내림을 누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죽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고 하셨다(15절). 벌이 끝난 것은 단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이다.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만들어야 했다(18절). 즉 화해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제물을 태우셨을 때

42) 이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죽음 때문에 성막을 떠나서는 안되며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든 죽음의 슬픔 때문에 성막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율법을 주셨다(레21:1-13).

(26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집에 꽂았다(27절).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예표되고 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을 주시지 않고 그 제물로 예표되었다가 이후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 별을 궁극적으로 없애버렸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특별히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에 있어서 언급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예표는 구약의 왕, 특히 다윗 왕의 사역에 있다.

예를 들어 삼상 30장에는 짐을 지켰던 사람들이 탈취물을 함께 나눈 유일한 사건을(24절) 일반적인 규칙으로 세웠다는 말이 나온다(25절). 짐 곁에 머문 자들은 싸움을 원치 않은 자들이 아니라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능성대로 참여했기 때문에 받은 유익에도 완전히 참여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유익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가능성대로 하나님을 위해 싸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는다.

다윗이 무덤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브넬의 죽음 자체가 아닌 그 죽음의 방식 때문이었다.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림같이 내게 엎드려졌도다.'(삼하 3:34)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왕국이 불의가 아닌 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한 규칙을 잘 이해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도 그의 다스리심이 불의와 살인 위에 건설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역의 발전은 목적은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리스바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삼하21:1-14) 그 왕국의 또 다른 요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음을 보여 주셨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은 기브온과의 맹세를 깨뜨렸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 것이 다윗의 왕국에서는 계속되어서는 안되므로 사울의 후손 중 일곱명이 사형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맹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나라에게 한 것이라도 허락되지 않음을 밝혀준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건의 끝은 아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범죄하고 벌을 받았지만 백성 가운데서 권리를 상실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달려있는 동안에는 기근이 계속된다. 그들이 합당하게 매장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온다(14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도 미움을 받아서는 안되고 율법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보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가지는 교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든 역사에서 그리스도는 여러 면으로 중심이 되신다.

9.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려고 일하신다.⁴³⁾

구약 역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직후에도 메시아를 태어나시게 하시고 그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 사역을 예언하셨지만(창3:15,16) 그 약속은 수 천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행동은 전혀 까닭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다. 창3:15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주 오랫동안의 과정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일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 규칙은 그 과정의 적은 부분에도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실것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백세가 될 때 태어날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향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마침내 이 약속은 '내년 이때에'⁴⁴⁾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43) 사실 이 마지막 단락은 특히 역사적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과 교제하신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신 것은 구약 율법과 시편에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역사적 본문만의 특징이다.

44) 한글 개역판은 '내년 이때'가 '기한이 이를 때에'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은 왕하4:16에 '똥이 되면'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창18:10에도 적용되는 것이 옳다. 참고 C.F.Keil *Genesis Und Exodus* Leipzig: Dorffling und Franke, 1878, p. 194 와 W.H. Gispens *Genesis II* Kampen: Kok, 1979, pp. 155f.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0)는 말씀으로 정확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거의 90세였다. 그들이 아이를 낳은 것은 사라 때문에도(창18:11), 아브라함 때문에도(히11:12) 불가능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삭의 탄생으로 성취될 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신다. 메시아는 인간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의 결과로 오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고 그 제물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될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나아가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계속됨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셨다(창22:18). 여기서 ‘네 씨’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실 수 있었지만 여기서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있는 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해방시키셨다(출3:19).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의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을 이루셨고(출2:24)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가능케 하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음을 당했다면 메시아가 오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당시의 가장 강력하던 강대국 조차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지 못함을 알려 주셨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룻1장), 이방인 여자의 믿음과 이스라엘 남자의 율법준수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당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고 계심을 보여 준다(룻4:18-21, 마1:5). 수 세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 때도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백성의 죄 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알려 주셨다. 또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불가능케 하려는 공격을 어떻게 역으로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준다(에10:3).⁴⁵⁾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가르쳐 주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쫓점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키신다.

10. 결 론

우리는 구약 역사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는 도덕적인 종교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자기의 의로움을 이룩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은혜와 능력이 많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눅24:27). 그 결과 그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다(32절). 즉 참된 기독교적 감동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결과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약 역사를 해석할 때 기독교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5)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앞서 언급한 Wiskerke의 *Purim* (월간고신 1989년 2월호)을 참고하라.